

http://dx.doi.org/10.17703/JCCT.2022.8.2.243

JCCT 2022-3-31

## 동화 <빨간 구두>의 서사 변용 특성 연구: 빅터 터너의 '사회적 드라마' 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arrative Transformation in Fairy Tale <RED SHOES>: Focusing on Victor W. Turner's 'Social-Drama' Theory

최영희\*

Young-hee Choi\*

**요약** 민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동화는 인류의 무의식과 보편적 정서를 담아낸다. 또한 다양한 서사 변용 작품에서 원형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는 빨간 구두와 춤, 그리고 발목의 절단이라는 상징적인 기표를 통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를 갖는 수많은 기의를 끌어온다. 빅터 터너의 사회적 드라마 이론은 단지이 작품을 탐욕과 허영심으로 가득한 소녀의 징벌이라는 틀로만 읽어왔던 그간의 시각을 넓혀주어 당대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사회공동체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환기하도록 만든다. 원형 콘텐츠로서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는 여성으로서의 성장과 사회공동체로의 편입이라는 이중 진입 장벽 앞에서 어린 소녀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수용되고 거부되는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통의 서사이다. 안데르센의 서사를 변용한 구병모의 소설 <빨간 구두>는 흰색으로 대변되는 천국의 영광과 빨간색으로 집약되는 지상의 색채 대비를 통해, 무질서해 보이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그 세계가 바로 지상의 세계이며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과 의미임을 확인시켜준다. 윤미경의 동화 <빨간 구두 춘매 씨>는 가비라는 소녀의 여성으로서의 성장 서사와 함께 낯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부인 여성 춘매의 사회 진입 서사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다문화 가정과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고발한다.

**주요어** : 안데르센, 동화 <빨간 구두>, 소설 <빨간구두당>, 동화 <빨간 구두 춘매 씨>, 빅터 터너, 사회적 드라마, 서사 변용

**Abstract** Fairy tales are rooted in folk tales and contain human unconsciousness and universal emotions. It also plays a role as original content in various narrative transformation works. Andersen's <RED SHOES> brings numerous signification through symbolic signs of red shoes, dance, and ankle amputation. Victor W. Turner's theory of social drama broadens the perspective of narrative analysis. In addition, this theory makes us realize the conditions of the social community required by society at the time. As a circular content, Andersen's <Red Shoes> shows the double entry narrative of growth as a woman and incorporation into the social community. In this process, the social conditions accepted and rejected are symbolically revealed. In Koo Byung-mo's novel <RED SHOES PARTY>, achromatic color and red color are contrasted. The red world is full of vitality and represents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Yoon Mi-kyung's fairy tale <RED SHOES, CHUNMAENG> is divided into different characters from the girl's growth narrative and the outsider's entry into the women's society. This work accuses preconceived notions and prejudices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and strangers.

**Key words** : Hans Christian Andersen, Fairy Tale <RED SHOES>, Novel <RED SHOES PARTY>, Fairy Tale <RED SHOES, CHUNMAENG>, Victor W. Turner, Social-Drama, Narrative Transformation

\*정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조교수 (제1저자) Received: January 28, 2022 / Revised: March 1, 2022

접수일: 2022년 1월 28일, 수정완료일: 2022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8일

Accepted: March 8, 2022

\*Corresponding Author: chanwch@hanmail.net

Dept. of Creative Wri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1. 서론

조지프 캠벨(Joseph Campbell)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신화와 민담을 수집하고 그 특징을 분석해 스토리와 캐릭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1]. 칼 융(Carl Gustav Jung) 역시 신화와 민담은 특정 집단의 무의식을 대변하는 것이며, 바로 그 집단무의식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을 '원형(archetype)'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원형 속에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다양한 패턴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2]. 기본적으로 민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동화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역사·사회·환경적 변화 모습을 제시하고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담아낸다. 이는 일종의 '공동체협과정'으로 대중 모두가 동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현상과 이야기들을 무의식적으로 함께 체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 된다 [3]. 이처럼 동화는 인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해 온 정서적 산물로 볼 수 있으며,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해 사회적·상징적 의미를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미디어를 통해 다채롭게 스토리텔링 되면서 현대의 문화산업적 측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데르센의 동화 <빨간 구두> 역시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변용되면서 소설과 동화를 비롯한 문자 예술 장르뿐만 아니라 연극, 뮤지컬과 같은 무대 예술 장르, 그리고 영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에 이르는 영상예술 장르까지 다수의 작품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물의 스펙트럼은 그다지 넓지 못하다. 이는 <빨간 구두>가 가진 동화로서의 차별성에 기인한다. <빨간 구두>는 행복하고 따뜻하게 끝을 맺는 여타의 동화와 달리, 빨간 구두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한 카렌이 구두를 벗을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계속 춤을 추게 되면서 결국 발목을 잘라내야 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서사 때문에 소위 '잔혹동화'라는 이름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빨간 구두>의 이러한 스토리와 결말에 천착한 논의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안데르센의 미천한 출신성분과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거듭된 실연(失戀)이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낳아 작품 속 소녀마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자전적 서사에 기댄 주장이다 [4]. 둘째, 가난한 소년 안데르센이 난생 처음으로 얻은 새 신발에서 지극한 기쁨을 느끼고 사람들의 시선을

욕망하지만 그것이 엄숙한 종교적 의무에 어긋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도 새 신발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작가 개인의 일화가 작품에 투영되었다는 시각이다 [5]. 셋째, 춤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고 여성이 겪게 되는 폭력적인 잔인성을 보여준다는 견해이다 [6]. 그러나 <빨간 구두>는 이 외에도 더 깊은 의미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어 해석의 초점을 주인공 카렌의 탐욕과 집착, 허영심에만 맞추는 것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이 작품에는 주변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빨간 구두에 대한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카렌의 심리적 기제와 그런 카렌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상징성은 '구두'라는 물질적 특성과 '빨간색'이라는 색채의 특성, 그리고 '춤'이라는 행위의 특성이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표출된다.

본 논문에서는 빅터 터너(Victor W. Turner)의 사회적 드라마(Social-Drama) 이론을 적용해 안데르센의 동화 <빨간 구두>에 내재된 심층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사회적 드라마 이론의 '위반(breach)-위기(crisis)-교정(redress)-재통합(reintegration) 또는 분열(schism)'의 구조 도식은 서사 속에서 진행되는 각각의 사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카렌이 사회공동체에 수용되는 과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당대 현실의 모순을 부각시켜 깨닫게 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의도한다. 나아가 서사 속 사건들의 통합체적 구성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당대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했던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병모의 소설 <빨간 구두당>(2015), 윤미경의 동화 <빨간 구두 춤맹 씨>(2018)에 나타난 원작 동화의 서사 변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작품은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작품으로서 원작 동화가 소설과 동화라는 장르를 통해 재탄생하면서 강조된 측면과 제거된 측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이는 원형 콘텐츠로서 <빨간 구두>가 지닌 핵심 요소가 무엇이며, <빨간 구두>가 현대에도 여전히 변용될 수 있는 유효한 서사임을 구명(究明)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각기 다른 장르로 구현된 두 작품에서 당대 사회에 작동했던 수용과 거부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 II. 본 론

### 1. 여성으로의 성장과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이중 장벽에 부딪힌 소녀의 고통 서사 : 안데르센의 동화 <빨간 구두>

빅터 터너의 사회적 드라마 4단계 도식은 “인간의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대립에서부터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갈등이나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의 구조와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7]. 이 도식은 모든 사건의 갈등 해결을 위한 문화적 방식과 양태를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통과 의례적인 구조를 차용하고 있으므로 인류의 사회문화적인 집적물이자 상징으로 가득 찬 동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가난한 소녀 카렌이 고아가 된 후, 사회공동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모순, 그리고 수용과 거부의 서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를 빅터 터너의 사회적 드라마 도식에 적용해 보면 그림 1과 같은 분석 도해를 추출할 수 있다.

#### (1) 위반

첫 번째 단계인 위반은 주체인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음으로써 사회공동체의 규범과 원칙, 자연적 질서를 어기게 되는 것과 연관된다. 카렌의 위반은 어머니의 장례식, 교회의 세례식과 성찬식, 그리고 마을의 무도회라는 전통적, 종교적, 사회적 의례와 관련되어 있다. 처음에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고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음지라도 그 행위 자체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 위반에 해당된다. 문제는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는 행위가 점층적 구조를 취함으로써 위반 행위가 위기의 확장성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카렌은 빨간 구두 때문에 노부인의 ‘눈에 들었다’고 생각함으로써 재차, 삼차 빨간 구두를 신는 위반 행위를 하게 된다. 카렌은 공주가 신은 빨간 가죽구두에 매혹되어 공주의 구두와 똑같은 구두를 사게 되고, 이 때문에 종교적 의례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침내는 앓아누운 노부인을 돌보는 대신 무도회에 참석하는 결정적 위반을 범하게 된다.

#### (2) 위기

두 번째 단계인 위기는 앞선 위반 단계의 행위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관계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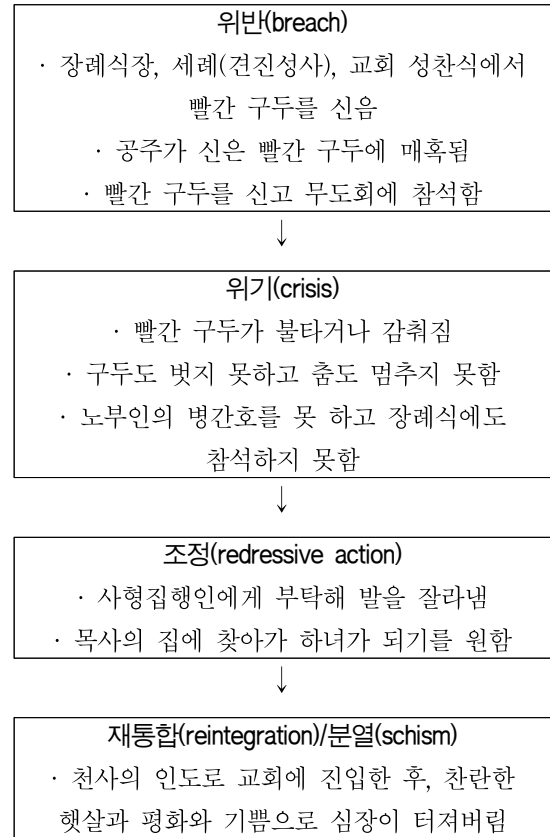


그림 1. 빅터 터너의 사회적 드라마 4단계에 의한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 서사 도해  
 Figure 1. Andersen's <RED SHOES> narrative analysis by Victor Turner's Social Drama Four Steps

것을 가리킨다. 카렌이 신은 첫 번째 빨간 구두는 구둣가게 아주머니가 남은 천으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카렌을 돌보기로 한 노부인은 카렌이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신었던 그 빨간 구두를 불에 태워 없앴으로써 장례식이라는 의례의 규범을 공고히 한다. 그러나 카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을 위한 세례식과 일요일의 성찬식에서 다시 빨간 구두를 신고 등장함으로써 종교적 의례의 신성성을 위협한다. 눈이 나쁜 노부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빨간 구두를 감춰버림으로써 다시 한번 규범과 질서를 카렌에게 인지시키고자 하지만, 카렌은 이를 어기고 다시 빨간 구두를 신고 무도회에 참석한다. 이제 카렌은 구두를 벗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춤도 멈추지 못함으로써 제어되지 않는 몸으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리고 병간호를 하지 못해 노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장례식에마저도 참석하지 못해 자신에게 부과된

마지막 의무마저 저버리게 된다.

### (3) 조정

세 번째 단계인 조정에서는 주체가 사회적인 분열을 해소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실행하는 모든 노력이 드러난다. 춤을 멈추지 못한 채 사형 집행인의 집까지 가게 된 카렌은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잘라달라는 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진짜' 발을 잃고 '가짜' 발(의족)을 얻은 카렌의 조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갔으나, 또 일주일 동안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슬피하다가 거둬하여 다시 교회에 갔으나 교회 앞에서 혼자 춤추고 있는 발목을 두 번이나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이다. 카렌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목사에게 찾아가 하녀로 일하기를 간청한다. 카렌이 원하는 것은 '돈은 필요 없으니 그저 선량한 사람들 곁에서 지내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대상으로 선택된 장소가 바로 목사의 가정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 (4) 재통합/분열

네 번째 단계인 재통합 혹은 분열에서는 주체가 초래한 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요소가 해소되어 위기를 겪었던 사회공동체의 재통합이 성사되거나, 혹은 개인이 사회집단으로부터 격리되거나 구성원 간의 분열이 확정되기도 한다. 카렌은 신체적으로는 발을 잃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어머니와 어머니의 역할을 대행해주었던 노부인을 잃음으로써 가족을 상실한다. 사회적으로는 공주가 신은 가죽 구두에 매혹되면서 그 구두에 무의식적으로 신분 상승의 욕망을 투영하지만 결국에는 하녀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다. 진정한 참회 끝에 잘린 발목은 예전에는 자신이 겪은 고통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전화한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교회에 가지만 카렌은 부끄러운 발목을 가졌기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홀로 철저히 소외된다. 그때에서야 천사가 내려와 카렌의 방을 교회 안으로 옮겨주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준다. 비록 카렌은 평화와 기쁨으로 인해 심장이 터져버리지만, 신이 있는 곳으로 영혼이 이동하게 되면서 비로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신발은 이동을 위한 실제 수단이자 신분을 표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에서

애초 신발이 없어 맨발이었던 카렌이 낡은 천으로 만든 빨간 구두를 신었다가 공주가 신었던 빨간 가죽 구두를 신게 된 것은 카렌의 여성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대변하는 동시에 사회에서의 신분 상승 욕구의 지향을 보여준다. 상징적 의미에서 '붉은색'은 기본적으로 '피(blood, mashi)'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피는 동물의 피, 산모의 출산혈, 여성의 월경혈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피와 살해, 자살, 그리고 주술과 연결된다 [8]. 그러나 뜨거움, 열정, 매혹(유혹), 혁명, 생명력 등과 같은 키워드들도 함께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빨간색은 생명의 보존과 지속을 상징하는 긍정성과 위험과 단절의 징후를 지닌 부정성이 공존하는 색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무도회에서 추기 시작하자 멈출 수 없게 된 춤은 한번 강력히 추동하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못하는 인간 내면에 도사린 욕망의 속성을 표출한다.

카렌의 가죽 구두를 툭툭 치며 '멋진 무용 신발'이라고 부추긴 늙은 '군인'과 카렌의 발목을 자른 '사형 집행인'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 가부장, 법적인 규범이나 사회적 제도 등을 상징한다.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 곤경에 빠뜨리거나 여기서 구해주는 역할은 모두 어머니, 구두가게 아주머니, 노부인, 목사의 아내라는 여성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교회는 그 자체로 종교적 의례가 행해지는 신성한 장소이기도 하면서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상징하는 사회공동체의 공간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는 집착, 허영심, 교만, 화려함, 꿈, 반항 혹은 도전, 미의 추구, 강렬함, 시선 집중, 유혹, 쟁취, 자유, 금기, 복종, 규율, 위반, 처벌, 대가, 저주, 타락, 자제력, 인내력, 신앙심과 불경, 본능의 표출과 통제, 사회공동체로의 수용 조건, 욕망의 주체자 혹은 대리자와 같은 수많은 키워드와 관계를 맺는다. 동화의 스토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상징과 의미들이 숨어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여성으로서의 성장과 사회공동체로의 편입이라는 이중 진입 장벽 앞에서 카렌이라는 어린 소녀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수용되고 거부되는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통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2. 무채색과 빨간색의 대비를 통한 인간의 존재 방식과 의미의 묘사 : 구병모의 소설 <빨간구두당>(2015)

구병모의 <빨간구두당>은 대화체 없이 서술과 묘사로만 이루어진 단편 소설이다. 흰색, 검은색, 회색만 존재하던 공간에 어느 날 ‘빨간 구두를 신은 처녀’가 춤을 추며 들어오면서 마을 전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카렌으로 추정되는 처녀는 객체화(대상화)되고, 마을 사람들과 젊은 신부(神父)의 시점에서 사건이 전개된다. 작품은 원작에서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했던 교회와 색채라는 소재가 강화되어 전면에 등장하며 젊은 신부의 시선과 깨달음이 주제와 연결된다.

소설 속 무채색만이 존재하는 사회는 공평하고 고요하지만 불편한 무지(無知)의 세계이다. 사람들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양이를 하고 나서야 상한 음식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본능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 능력은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 머문다. 무채색의 세계는 아흔두 살인 늙은 신부의 기억과 성서에 기술된 내용이 근거로 제시되면서 정상적인 사회로 설명된다. 빨간 구두를 신은 춤추는 처녀의 등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던 색채에 눈을 뜨게 함으로써 일상과 예술, 감정의 영역에서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게 하는 한편,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머리에 피가 시큰하게 하는 경험을 공유’하게 만든다. 급기야 늙은 신부는 임종 직전 유언으로 빨간 구두를 보고 싶다고 말하여 젊은 신부를 당혹케 한다. 춤추는 빨간 구두 한 켤레가 불러온 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색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척하는 사람들을 무리로 나누어 구분 짓게 만들고, 나아가 잘린 발목의 빨간 구두를 추종하는 ‘빨간구두당’을 설립하게 만든다.

아래 그림 2의 도해에서처럼 춤추는 빨간 구두는 사람들에게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개안(開眼)의 기회를 제공해 사람들을 구별하고 무리 짓는 위반을 하도록 추동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인지와 활동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단순하고 고요하던 세계가 주먹질, 난동, 약탈로 들쭉이는 위기로 나아가게 한다. 그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는 처녀와 빨간구두당 일원들의 발목을 자르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처녀의 잘린 발목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나와 원작 동화에서처럼 혼자 춤추며 돌아다니지만 ‘단족대’로 보내진 빨간구두당의 수많은 발들은 그대로 타서 없어진다. 마침내 사람들이 색깔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춤도 추지 않으면서 세상은 다시 무채색의 세계로 돌아가며 재통합의 단계로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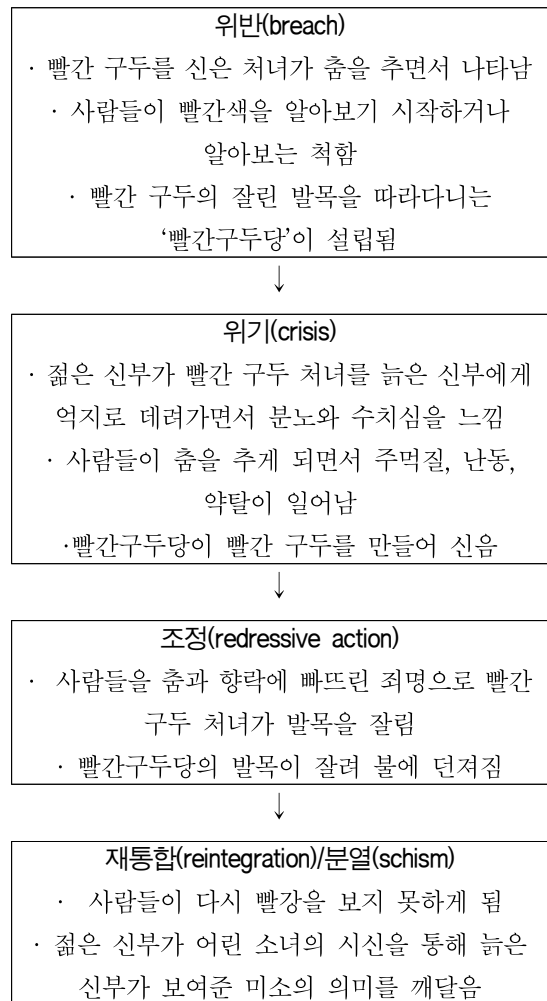


그림 2. 빅터 터너의 사회적 드라마 4단계에 의한 구병모의 소설 <빨간구두당> 서사 도해  
 Figure 2. Koo Byungmo's <RED SHOES PARTY> narrative analysis by Victor Turner's Social Drama Four Steps

흥미로운 사실은 늙은 신부가 임종 시에 빨간 구두를 보면서 보여준 미소의 의미를 찾고자 젊은 신부가 홀로 방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흰색으로 대변되는 신성성, 즉 천국의 영광과 빨간색으로 집약되는 지상의 색채 대비를 통해 비록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회공동체는 다시 무채색으로 돌아간 듯 보이지만 언젠가 또 튀어나올지 모르는 빨간색 세계의 잠재성을 열어둔다. 빨간 구두를 신은 채 춤추는 잘린 발목은 언제 어디서든 살아남아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빨강을 절대적인 신의 위치로 상승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떠올려보자면, 이 소설은 엄밀히 다른 것 같은 흰색과 빨간색이 상통할 수 있는 것처럼 극단의 다른 세계처럼 보이는 천국과 지상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9]. 어린 소녀의 시신 속에서 붉게 번져 나오는 빨간색의 실체를 확인한 젊은 신부는 그때서야 제대로 빨간색을 '볼 수 있게' 된다. 젊은 신부의 미소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그 세계가 바로 지상의 세계이자 천국일 수 있으며,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과 의미임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3. 다문화가족과 외부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고발 : 윤미경의 동화 <빨간 구두 춘맹 씨>(2018)

윤미경의 <빨간 구두 춘맹 씨>는 어촌에 사는 소녀 가비의 시선으로 그린 1인칭 시점의 동화이다. 가비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너온 춘맹이라는 여성이 가정과 지역공동체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고발하고 있지만, 동화라는 장르에 걸맞게 따뜻한 분위기도 잃지 않고 있다.

가비의 새엄마인 춘맹이 빨간 구두를 신고 꽃무늬 스키니 바지를 입고 어촌 마을에 등장함으로써 가비와 마을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발생시킨다. 다음 그림 3의 도해에서처럼 그녀는 살림을 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으며, 한국 연예인을 동경해 종일 TV만 시청함으로써 엄마라는 역할을 위반한다. 또한 어획물 수확이 실패하자 원양어선을 타게 된 가비 아버지가 집을 비웠을 때, 마을에 벽화를 그리러 온 화가와 왕래함으로써(사실은 모델료를 벌기 위함)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위반을 만든다. 빨간 구두는 춘맹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함의한 대용물로 가능하며,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그리고 어촌이라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적합하지 못하다고 거부하도록 작용한다. 말다툼 끝에 가출한 춘맹이 시비에 휘말려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가비가 춘맹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조정 단계로 진입한다. 목사의 주선으로 마을회관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춘맹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어촌마을과 이주 외국인의 홍보대사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춘맹은 가비의 동생을 출산하면서 온전한 가족을 이룬다. 이 작품의 재통합 단계에서는 가정에서도, 마을공동체에서도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춘맹의 모습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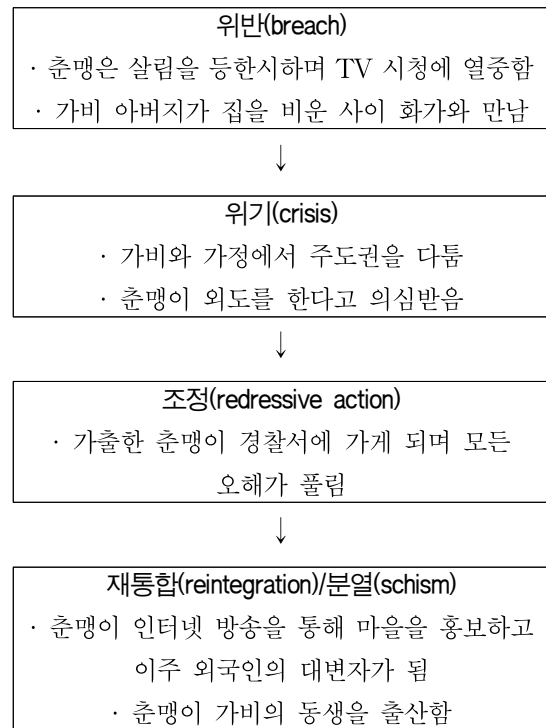


그림 3. 빅터 터너의 사회적 드라마 4단계에 의한 윤미경의 동화 <빨간 구두 춘맹 씨> 서사 도해  
Figure 3. Yoon MiKyung's <RED SHOES, CHUNMAENG> narrative analysis by Victor Turner's Social Drama Four Steps

<빨간 구두 춘맹 씨>는 탐욕과 허영으로 점철된 소녀의 징벌 서사가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따뜻한 이야기로 변신할 수 있음을 증명해준다. 이 작품은 원작 동화에서 카렌에게 부과되었던 중첩의 서사가 가비라는 소녀의 여성으로의 성장 서사와 춘맹이라는 여성의 사회 진입 서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가비는 춘맹이 미리 신경 써준 준비물로 무사히 초경을 시작하면서 여성으로의 성장 단계로 들어가고, 낯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부인 춘맹은 출산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꿈이었던 방송을 통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착한다. 앞서 서술한 대로 붉은색의 상징 중 하나가 여성의 월경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춘맹이 신고 온 구두의 빨간색은 자연스럽게 가비에게로 확장·적용된다. 신성한 의례에 참여해야 하는 “현실 원칙”과 빨간구두를 신고 춤을 추고 싶은 “쾌락원칙” 사이에 놓인 카렌의 “이중적 심리경향”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원칙과 연예인에 대한 동경을 추구하는 쾌락원칙의 딜레마에 놓인 춘맹의 이중적 심리와 상황으로 표현된다 [10]. 원작 동화의 춤은 춘맹이

추구하는 연예인의 행위, 즉 춤과 노래로 형상화되며, 빨간색은 외부인을 바라보는 사회공동체 내부의 선입견과 함께 춘맹의 꿈과 희망을 동시에 드러내는 중의적인 오브제라고 할 수 있다.

### III. 결 론

안테르센의 <빨간 구두>는 빨간 구두와 춤, 그리고 발목의 절단이라는 상징적인 기표를 통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를 갖는 수많은 기의를 끌어온다. 빅터 터너의 사회적 드라마 이론은 단지 이 작품을 탐욕과 허영심으로 가득한 소녀의 징벌이라는 틀로만 읽어왔던 그간의 시각을 넓혀주어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공동체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환기하도록 만든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에 따라 빨간색과 춤, 발목 절단으로 대변되는 상징은 교만, 집착, 금기, 반항, 유혹, 불경, 타락, 저주 등과 같은 부정적 키워드로도, 꿈과 도전, 자유, 미의 추구, 인내심,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키워드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구병모의 <빨간구두당>과 윤미경의 <빨간 구두 춘맹 씨>는 안테르센의 원작 동화가 각각 소설과 동화로 서사 변용된 작품이다. 두 작품은 빨간 구두를 신은 여성이 외부에서 특정한 사회로 진입을 시도하지만, 그 여성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요한 사회공동체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두 작품은 같은 소재의 서사가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원형 콘텐츠로서 안테르센의 <빨간 구두>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References

- [1] Joseph Campbell,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Lee Yoonki translation, minumsa, 2018.
- [2] Carl Gustav Jung, Man and His Symbols, Lee Yoonki translation, openbooks, 2009.
- [3] Woo, Heecheung, A study on developing the space-based cultural contents transformed from original fairy tale - The case for the theme park application, Children's Literature and Translation, no.31, pp.235-258, Children's Literature and Tran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6.
- [4] Hans Christian Andersen, Andersen's fairy tale

book, Byun Yong-ran translation, novelmine, 2005. 177-190.

- [5] Han, Hye Chung, The Desire for Foot(wear) and the Suppression of It: The Transgressive Girls in Hans Christian Andersen's Fairy Tales, The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NKJE), vol.54, no.2, pp.109-131, The New Korean Associat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012.
- [6] Han, Sang-Soo, The Sexual Politics and Political Cruelty in Andersen's "The Little Mermaid," "The Brave Tin Soldier," and "The Red Shoes,"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no.57.1, pp.241-260, The Modern English Society Of Korea, 2013.
- [7] Victor W.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 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pp.115-119, New York: Performing Arts Journal Publications, 1982.
- [8] Victor W. Turner, The Forest of Symbols: Aspects of Ndembu Ritual, Jang YongGyu translation, pp.120-131, Zmanz Press, 2020.
- [9] Kang, Seung Ryul, A Study on Memories of Murder by Color Theory of Wassily Kandinsky, Cineforum, No.24, pp.13-41, Dongguk Univ. Video Media Center, 2016.
- [10] Bruno Bettelheim, The Uses of Enchantment, Kim Oksoon·Joo Ok translation, Sigongjunior, 2007.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일반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